진안로컬푸드 도약 위한 청사진 제시

군, 학교급식 공급 확대·통합인증제도·제휴푸드 도입 등 4대 과제 추진

진안군은 2019년 개장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진안로컬푸드'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은 먹거리 위원회를 비롯해 이용객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이번 개선안은 △로컬푸드 연계 지역먹거리 학교급식 공급확대, △안전성 통합인증제도 마련, △제휴푸드 도입, △소비자 모니터링단 운영 등 네 가지 핵심 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진안군은 관내 학생들의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학교급식 내 로컬푸드 공급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연중 다품목 소량 공급이라는 학교급식 납품 특성상 농가 참여가 부족했고, 관내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로컬푸드에서 학교급식의 수요기반에 맞는 농가를 조직화하고, 개별농가를 대신해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

올해는 일정 규모 소비 수요가 있는 채소류와 과일류 중에서 양파, 무, 당근, 사과, 딸기 등 11개 품목을 우선 공급하고, 향후에는 관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전체 농산물까지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진안로컬푸드 전주호성점

다음으로 안전한 지역 농산물 공급을 위해 '진안로컬푸드 안전성 통합인증제도'를 추진한다. 이 제도는 농산물의 생산 및 품질관리 체계를 일정한 기준으로 검사하고,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신뢰도를 높이고 진안로컬푸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올해 안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증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내년부터는 시범시행 등을 통해 로컬푸드의 안전성관리 체계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또한 직매장 내 판매 품목의 다양성을 확보해 소비자들의 원스톱 쇼핑이 가능하도록 지역 특성상 생산이 어려운 품목을 중심으로 타 시·군의 우수한 농식품을 판매하는 제휴푸드를 도입한다.

이번에 도입되는 품목은 수산물, 가공식품 등으로 전북특별자치도내 로컬푸드 납품 농가 또는 업체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독립된 '제휴푸드 코너'를 운영하며, 품질기준 역시 로컬푸드 품질인증 기준과 동일한 수준을 적용해 신뢰도를 확보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지역 먹거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위해 '소비자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

소비자 모니터링단은 직매장별로 우수회원을 중심으로 10명 내외로 구성되며, 매장 운영 및 출하 품목 등에 대해 세밀하게 확인하여 개선사항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전춘성 군수는 "이번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개선안을 통해 지역 농민에게는 판로 확대와 소득 창출을, 소비자들에겐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비자와 공급자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여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주민 숙원 해결 나선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대화' 건의 사항 처리 나서

무주군이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13일까지 6개 읍면, 30개 마을을 찾아가 진행했던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대화(& 사랑방 토크)' 건의 사항 처리에 주력한다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각 읍면에서 취합된 건의 사항은 모두 177건으로 '배수로 설치' 관련이 1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마을회관 보수·리모델링 및 신축', '농로 정비', '주차장 조성', '제설' 관련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지역의 고령화 현실을 고려해 '화장장 설치' 건을 제안한 군민 의견에 대해서는 인근 지자체와 함께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화장장건립 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 인근 지자체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설천면 벌한마을 소방도로 조성' 건은 좁은 도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년부터 추진해 온 고립위험지구 확장 사업을 토대로 농어촌도로 기본계획('25년)과 농어촌도로 정비계획('26년)에 반영시키는 노력을 펼쳐 주민 안전과 편의를 도모해 갈 계획이다.

무주군청 자치행정과 정성희 과장은 "부서 검토를 마친 주민 의견들은 시급성을 요하는 건부터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처리하고 관련 법 검토, 부처나 기관협의,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풀어나갈 방침"이라며 "지역의 크고 작은 현안을 살피고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한다는 취지에서 열린 대화의 시간을 마련했던 만큼 발 빠른 처리와 진행 상황 공유로 군민 만족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전기 저상버스 도입 위한 시승식 열어

진안군은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도입하는 전기 저상버스를 도입한다.

군은 지난 20일 전춘성 군수, 이루라 군의회 부의장 등이 함께한 가운데 농어촌 버스 실제노선 운행을 통한 운행 곤란 구간 파악하고 차량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군 주요 위험 구간에 대해 시승식을 진행했다.

전기 저상버스는 일반 경유 버스와 달리 주행 시 매연,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버스로 대기질 개선 효과가 크다.

또한, 버스 바닥이 낮고 출입구 계단이 없어 노인, 장애인과 같은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고령자가 많은 진안 지역에 적합하다.

군은 올해 전기저상버스 2대를 도입하여 이용객이 많은 노선에 우선 투입할 예정이며, 점차 확대해갈 계획이다.

전춘성 군수는 "직접 체험해보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특히 좋아하실 것 같다. 앞으로도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농식품바우처 지원 사업 본격 시행

무주군이 농식품바우처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바우처 는 지역 내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강화하고 먹거리 안전망 확충을 위해 신선 농산물 구매를 지원하는 것으로,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수급 가구 중 임산부와 영유아, 18세 이하 아동이 포함된 가구에 농협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등 지정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카드)를 지급한다.

카드에 적립 지원(3~12월까지 10개월)되는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월 4만 원에서 4인 가구 월 10만 원 등(차등 지원)으로 과일류를 비롯한 채소류와 육류, 잡곡류 등을 구매할 때 사용하면 된다.

지원 대상 가구는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주민등록 주소지) 산업팀을 방문하거나 농식품 바우처 누리집 또는 고객센터(1551-0857)를 통해 문의 또는 신청할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외국인 계절근로 운영 '우수'

법무부 우수 지자체 선정

장수군은 법무부 선정 외국인 계절근로 운영 우수 지자체에 올해 처음으로 선정됐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법무부는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해외입국 평균 이탈률 5% 미만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우수 지자체로 선정하고 있다.

장수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인정받아 우수 지자체에 선정돼 농가와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면 농가당 고용할 수 있는 근로자가 2명씩 늘어난다. 농업경영체등록 재배면적으로 고용인원이 제한되는 농가에게 혜택이 돌아가며 외국인 근로자는 본국의 농업종사 입증서류 제출이 면제돼 비자발급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된다.

장수군은 올해 164개 농가에 427명의 근로자를 배치할 예정이며 오는 4월까지 약256명의 근로자가 입국해 농가에 배치될 예정이다.

최훈식 군수는 "우수 지차제 선정은 장수군과 농업인, 외국인 근로자 간의 신뢰로 달성한 성과이다"며 "앞으로도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증가하는 근로자 수요에 맞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근로자들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군, 무주읍 노후간판 정비 1차분 사업 완료

무주군은 무주읍 상권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노후간판 정비 사업' 1차분(단천로 55개 점포)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무주읍 상권활성화 사업은 쇠퇴한 무주읍 상권을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 환경을 개선하고 반딧불시장과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키운다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간판 정비에 3년간(~2026년) 총 80억 원을 투입한다.

새롭게 정비된 간판은 무주를 상징하는 '반딧불이'와 '덕유산'을 모티브로 반딧불과 덕유산 능선을 디자인에 반영해 눈길을 끌고 있다.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 김영광 팀장은 "2차분 80여 개 점포도 간판 정비를 서둘러 무주읍 상권이 보다 말끔하고 미적으로도 특별한 매력을 풍길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전 구역 정비가 완료되면 간판 자체로 아름다운 야간경관을 만들어 관광객 유입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장수군의회 한국희 의원 발의 조례안 가결

장수군의회 한국희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제37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에서 가결되었다.

최근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전용 충전시설과 주차구역이 증가하고 있지만, 전기차 화재 발생 빈도 또한 증가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전기차 화재 예방 및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지원 및 대응 매뉴얼 배포 등, 더욱 체계적인 예방 대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한국희 의원은 "전기차 화재 사고는 단순한 개별 사고가 아니라,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전기차 화재에 대한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 안전한 이용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제출 안내

진안군은 법인소득세 특별징수 의무자를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함을 안내하고 나섰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의무자란 내국법인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 신고·납부한 자를 말한다.

특별징수 의무자는 전년도에 신고 및 납부한 특별징수 명세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특별징수 명세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진안군 재무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진안=우태만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펜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게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옥),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